

Only at the end of his life was Steiner able to devote full attention to the second great task of his professed mission: communicating the reality of reincarnation and karma in a form appropriate for the West. Surely, it is no accident that Steiner undertook this labor only long after his theosophical phase: Steiner's assertions bear scant resemblance to most oriental teachings, and he would not have wanted them to be confused. But an excellent (and necessary) introduction to the topic can be found already in a chapter of *Esoteric Science* called "Sleep and Death." It may have become a tired metaphor, but it is nevertheless true that sleep is a 'little death': every night in sleep, we leave our bodies to enter and commune with the spiritual world, only to forget the experience upon awakening. In the same way, we commune with spiritual beings during a longer interval in the spiritual world between incarnations, only to drink from Lethe, the river of forgetfulness, before being reborn. Both our death and our rebirth are, as Wordsworth claimed, "but a sleep and a forgetting." We are no more newly created at birth than we are upon awakening from sleep in the morning.

슈타이너는 말년이 되어서야 자신이 공언한 사명의 두 번째 큰 과업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은 환생과 업보의 현실을 서양에 적합한 형태로 전달되었습니다. 분명히, 슈타이너가 신지학적 단계 이후에야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슈타이너의 주장은 대부분의 동양적 가르침과 거의 유사하지 않으며, 그는 그것들이 혼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그리고 필연적인) 소개는 이미 "수면과 죽음"이라는 심오한 과학의 한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은유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이 '작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잘 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교감하기 위해 몸을 맡기고, 깨어났을 때는 그 경험을 잊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육체를 가진 존재 사이에 더 긴 시간을 두고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하며, 다시 태어나기 전에 망각의 강인 레테를 마실 뿐입니다. 워즈워스(Wordsworth)가 주장했듯이, 우리의 죽음과 재탄생은 모두 "수면과 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Reincarnation makes sense of the evolution of consciousness, and vice versa. But it also balances out the injustices of the seeming accidents of birth: class, gender, race, opportunities or their lack, living

in a time of peace or hellish strife, experiencing the marvelous comforts and conveniences provided by technology, and so forth. According to Steiner, we typically alternate genders, and move from culture to culture across many incarnations, absorbing (or at least being given the chance to absorb) the best that each culture has to offer. It is a deeply cosmopolitan vision: all of us, over time, wittingly or not, are gradually becoming citizens of the world and whole human beings. Capacities acquired through hard work (or suffering, or other trials) in one incarnation metamorphose into new talents in the next. Genius is no accident.

환생은 의식의 진화를 의미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출생의 우연(타고난 팔자)으로 보이는 부당성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계급, 성별, 인종, 기회 또는 부족, 평화나 지옥 같은 투쟁의 시대에 살고,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놀라운 편안함과 편리함을 경험하는 것 등등이 타고난 팔자, 우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성별을 번갈아 가며 여러 육체를 가진 존재를 거쳐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동하며 각 문화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흡수(또는 적어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하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의로든 아니든 점차 세계의 시민이 되고 전 인류가 됩니다. 한 육체를 가진 존재에서 힘든 일(또는 고통, 또는 다른 시련)을 통해 얻은 능력은 다음 육체를 가진 존재에서 새로운 재능으로 변모됩니다. 천재는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Together, reincarnation and karma deliver *concrete justice – and mercy – in this world*, rather than a vague promise of recompense in the next. Our labors come back as new capacities, but our failings and our misdeeds also come back to meet us in our next incarnation, confronting us as seemingly accidental encounters and outer events. By letting us experience on our own skins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and by giving us an opportunity to grow and to enact compensation, karma is an act of Grace, a higher lawfulness that allows us to make ourselves whole. Steiner warned that the laws of karma are immensely complex, and that karma is endlessly inventive, so he moved rather quickly [in *Karmic Relationships*] from a set of lectures establishing some basic principles to a long series of examples from the biographies of real figures from history. The Greek counterpart to the Sanskrit word

‘karma’ would be ‘drama,’ and Steiner exhorted us to view our biographies as unfolding moral dramas, or to think of karma as a sculptor shaping our living clay. If, as Steiner asserted, “Karma is the greatest artist,” then our very lives must be the greatest works of art. Everything that we do, and everything that we suffer, has meaning.

환생과 카르마는 함께 후에 다음 세상에서 보상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정의와 자비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동은 새로운 능력으로 돌아오지만, 우리의 실패와 악행 및 비행 또한 우리의 육체를 가진 다음 존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되돌아오고,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과 외부의 사건처럼 우리와 마주칩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를 우리 피부로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장하고 보상할 기회를 줌으로써, 카르마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더 높은 합법적인 은총의 행위인 특전입니다. 슈타이너는 카르마의 법칙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카르마는 끝없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르마의 관계에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일련의 강연에서 역사로부터 실제 인물들의 전기에서 나온 긴 일련의 예시로 다소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드라마’이며, 슈타이너는 우리의 전기를 도덕적 드라마로 보거나 카르마를 살아있는 점토를 만드는 조각가로 생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슈타이너가 주장했듯이, “카르마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excerpt from Frederick Amrine, *Discovering a Genius: Rudolf Steiner at 150* [(Amazon:) Keryx, 2017])

(프레데릭 암린[Frederick Amrine], 천재의 발견에서 발췌: 150(아마존:) Keryx, 2017 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